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43) - 태봉성산지(泰封城山址)

선조의 12번째 왕자, 시호는 정효(靖孝)



최종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9호
- 소재지 :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산 727
- 규모 : 높이 2.5m, 둘레 1~2km로 추측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산 727에 위치한 태봉성산지(泰封城山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포천현 고적조에 의하면 城山(古城) 석축이다. 둘레 1천937척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 山頂에 석성이 축성된 것이 역사가 매우 오랜 것임은 틀림없다. 이 城山은 918년 태봉왕 궁예가 철원에서 그의 부장이었던 왕건군에게 쫓길 때 한 때 웅거하며 抗戰(항전)했던 城址로 알려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궁예왕은 자연전을 피기 위해 北江(현

한탄강)에서 백성과 군사들이 일렬로 서서 손에서 손으로 돌을 전달, 급히 築造(축조)한 성이라 하나 그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그는 이곳 싸움에서 패하여 패주골을 경유, 울음산(명성산)에서 도읍지 철원을 바라보고 통곡했다는 전설도 있다. 또 이 성산은 조선 제23대 순조의 세자 익종의 태를 안치했던 곳으로, 흔히 泰封山城이라

불러지기도 한 것은 여기에서 유래되는 듯 싶다. 이 산성의 규모가 본래 어느 정도인지 확실치 않으나 현재 높이 2~5m, 둘레 1~2km정도 추측되는 城址가 불연속적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정상 城域(성역)내에는 築城(축성)의 필수조건인 지름 3m가량의 우물이 남아 있어 군사들의 식수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또한 정상 일대에는 기와 장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던 자리임도 확인된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349호 4면 우리고를 문화유적 (39) 제목 '형성이씨시조 이지란, 이종노 영정봉안'을 '형해이씨 시조 이지란, 이종노 영정봉안'으로 바로 잡습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맥베스의 용맹과 죄의식



박정근 대전대학교 영문학박사

세익스피어의 사대비극 중에서 가장 피비린 내나는 비극으로 평가되는 『맥베스』의 무대는 피비린내가 나는 죽음의 연속이다.

한 번의 거짓말이 수많은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것이 인간사회의 통설이다. 작은 거짓말이 들끓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로 변명과 핑계를 만든다. 실제로 끝나는 불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맥베스는 마녀들이 전장에서 돌아오는 광야에서 들려준 예언, 즉 맥베스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 한마디가 충신을 역신으로 변하게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의 용맹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그의 강력한 지도력에 대해서 칭송이 자자할 때, 당시의 가슴속에는 무슨 생각이 꿈틀거릴까. 아마도 왕관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만하다.

“야망의 십자가를 의미 없이 지고 가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자”

“인간성을 상실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와서, 하루하루는 기록된 최후의 순간까지 일보일보 기어오르고, 우리의 어찌라는 날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의 티끌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비취준다. 꺼져라, 단명한 촛불아!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장한 듯이 떠돌지만, 그것이 지나면 잊혀지는 가련한 배우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보의 지껄이는 소리, 소리 높이 시끄럽게 떠돌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와서, 하루하루는 기록된 최후의 순간까지 일보일보 기어오르고, 우리의 어찌라는 날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의 티끌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비취준다. 꺼져라, 단명한 촛불아!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장한 듯이 떠돌지만, 그것이 지나면 잊혀지는 가련한 배우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보의 지껄이는 소리, 소리 높이 시끄럽게 떠돌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는 “나는 이제부터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맥베스는 잠을 죽였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소...그 죄 없는 잠, 근심에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서 곱게 짜 주는 잠, 잠은 그날 그날의 생명의 죽을, 노를 씻어주는 약, 마음의 상처를 닦게 하는 향유, 대자연이 베풀어주는 제일 좋은 요리, 인생의 향연에 제일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것들”이라고 토로한다.

그는 용맹이 자신을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했으며, 죄 없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잠을 앗아가 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그가 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덩컨왕이 사라졌는데, 만세를 부르고 좋아해야 할 맥베스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병이 들어서 모든 생물에 필수적인 잠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에게 닥칠 암울한 앞날을 말해준다.

죄의식에 시달려 잠을 잃어버린 왕이 된 맥베스는 덩컨왕 시해의 죄과를 밝혀낼 수 있는 모든 자들을 자각을 동원하여 죽이기 시작한다. 맥베스와 도날베인은 해외로 망명하고, 맥베스의 친구인 뱅코우는 광야의 예언을 알고 있는 자이기에 제일 먼저 제거된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출현하는 유령은 막을 수 없다. 그가 죽인 자가 늘어날수록 그를 괴롭히는 유령의 숫자가 늘어날 뿐이다.

유령이 나타나는 잠은 오히려 자지 않느니라 못하다. 잠을 이루지 못한 맥베스에게 귀족들과 회의의 주재하는 장소나 파티를 여는 연회 장소에도 유령은 출기차게 따라 붙는다.

하지만 그가 두려움에 떠는 유령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사람을 괴롭히는 유령은 마음의 병이 든 자에게 출몰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는 사력을 다해 자신의 살인의 비밀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다.

그는 “죄를 요구한다”고 한다. 옛날에는 돌도 움직이고, 나무도 말한 일이 있다고 한다. 잠잠 이들은 이법을 가지고, 까치나 부리 붉은 까마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살인자의 비밀을 탐로시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반영하는 환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맥더프 마저 살해하려 하지만, 그 검색을 눈치 챈 그는 영국으로 망명해 버린다. 그를 놓친 자객은 애꿎은 그의 아들만 죽이고 만다. 권력은 그 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간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선물이다.

맥베스는 모든 환경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자의 몸에서 난 자에게 죽지 않는대거나 숲이 움직이지 않으면 패배하지 않는다는 마녀들의 예언만을 믿고 끝까지 버티는 영웅성을 보여주지만 그 것마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씻을 수 없는 죄의 멍에를 지고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와서, 하루하루는 기록된 최후의 순간까지 일보일보 기어오르고, 우리의 어찌라는 날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의 티끌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비취준다. 꺼져라, 단명한 촛불아!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장한 듯이 떠돌지만, 그것이 지나면 잊혀지는 가련한 배우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보의 지껄이는 소리, 소리 높이 시끄럽게 떠돌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그 허무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맥베스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총체적 존재에 살인에 대한 죄의식만이 온통 덧칠해진 채 무의미한 심연에 빠진 채 죽음을 기다리는 한심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

우리는 엄청난 의미로 우리를 압박하는 야망의 십자가를 의미 없이 지고 가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자. 그 무게에 의해서 질식해 가는 인간성이라는 생명의 산소를 되살리기 위해서 경계의 눈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에세이 15

독서의 계절



조대형 평민고등학교 교장

학생 여러분! 가을의 맑은 아침해가 우리를 반겨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가을은 등하가친의 계절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 모두가 책을 읽어야 할 때이다.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다. 라는 뜻이지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잘 아시겠지요? 미국의 빌게이츠라는 컴퓨터의 황제입니다. 바로 지식·정보의 결과입니다. 지식·정보는 책을 통해서 얻어지며 좋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항상 남보다 앞선 사람이 되고 독서를 많이 하는 국민이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몇 년 전의 통계이지만 이웃 나라 일본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3,000쪽이라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잘 사는 이유

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책에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사성어를 보면 男兒須讀五車書(남아수독오거서)란 말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다섯 수레에 실을 정도의 책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책도 책 나름입니다. 모든 약이 나에게 맞는 약이 아닌 듯이, 책도 모든 책이 나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유익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학생은 五車書인데 여학생은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여학생들은 비교적 책 읽기를 좋아하니 더 많이 읽어주세요. ‘女兒須讀 八車書’쯤 해볼까요!

옛말에 책을 권하는 사람은 행복을 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책을 읽으십시오. 위인전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아름다운 시도 읽고, 수필도, 소설도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름다운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있을 때가 있다. 고 합니다. 즉, 키가 커야할 때 커야 하고, 생각이 자라야 할 때, 자라야 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읽어야 할 책은 초등학교 때 읽어야 하고, 중등학교 때 읽어야 할 책은 중등학교 때 읽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바로 도서실로 가십시오. 그리고 책을 고르십시오.

바로 그 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다시 그 기회를 만나기 힘들고 해야 할 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독서입니다. 학생 여러분!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컴퓨터 오락이나, 만화나, TV시청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 미래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책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십시오. 부정적인 삶보다는 긍정적인 삶, 질책보다는 칭찬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좋은 날! 독서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들의 손에, 손에 책을 들려준 그 모습이 가을단풍 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아인스월드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평상화단지 내 건실한 숲의 빅박스형 미니멀 테마파크 전체 25개국 109종의 유명 건축물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세계 최고 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파리지앵 Festival 4/15~6/19

“아인스월드에 가면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60일간의 프랑스여행

프랑스 문화에 빠져-쉽시대

- 김미로운 선물의 밤
  - 고풍미에 감동하는 노천카페의 낭만
- 김미로운 프랑스 음식의 향연
  - 와인과 크레페의 멋진 만남
- 재미있는 연극공연
  - 프랑스를 모르고 하는 연극은 어떻게? 연극수업으로 빠져보세요!

여러언어는 프랑스에서~

-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 전통의 품속이행
  - 인형극 관람을 통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깨우쳐주세요!
- 환상의 물풍놀이
  - 자녀의 웃음이 하나 더 늘어날까? 아름다운 추억!
- 피자 도우 Show!
  - 피자 인형을 이용한 화려한 쇼 (Mr.Pizza 드림팀 출연)

즐거움을 함께하는 아인스월드!

- 폼파르드 카페 미션도
  - 카페리제 / 페이스페인팅
  - 살아 움직이는 풍상 미션쇼
- 민법의 아인스월드
  - 노년(노래)에서 즐기는 민법학
  - 자의(자서)를 즐기는 민법학
  - 영웅(영웅)의 화려한 풍물놀이
- 포도콘 미션도
  - 프랑스 자선(자선)에 대해 배우는 미션도
  - 함께 구아를!
  - 체험할 때부터 상상을 뛰어넘는 재미
  - 세계 유명 건축물의 해설(해설)과 미션도

사건판권-파리까지!

아인스월드의 즐거움 추억을 사진에 담아 직접 패리로 떠나는 신나는 사진 콘테스트

1등 프랑스 7박8일 여행권!! (미션권) 디지털 카메라, 무료인형공연 등 (이벤트 대상은 추첨을 통한 선정입니다.)

“아인스월드에서 프랑스의 모든것을 만나보세요~이제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후원: PARIS VISITE, KB, 카드, 바나나카드, Mr.Pizza

세계최고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 대표전화 032-320-6000 | www.ainsworld.com | 인터넷 검색창에 아인스월드를 쳐보세요! 행운이 쏟아집니다!